

“태허 스님 발자취 찾아 가요”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 항일 사적지 탐방 행사 개최

(사)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는 대학생 50명을 선발, 오는 8월 6일부터 15일까지 태허 스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중국 상해를 비롯해 남경, 무한, 광주, 유주, 계림, 중경, 북경 등 8개 도시를 순례한다.

이를 위해 사업회는 오는 30일까지 사업회 홈페이지(www.kimsunguk.or.kr)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응모 대상은 전국 4년제 및 2년제 대학생으로,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해·남경 등 8개 도시 순례 항일 투쟁 관련 토론회도 마련

탐방단원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중국 상해의 독립운동가 묘역인 송경명능원을 시작으로 △임시정부청사 △한국대립전선통일연맹결성회의장소 △홍구공원 △조선의용대 창설장소 △황포군관학교 △조선의용대 전투지 △광복군 제 1지대 본부 △민족혁명당 거점지

△임시정부 항일활동 투쟁 전시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중국 북경대와 중산대를 방문해 중국 대학생들과 항일투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항일 애국지사 후손들과의 만남의 장도 마련된다.

민성진 사무국장은 “이번 탐방은 단순히 유적지만 둘러보는 순례 목적을 넘어 현지 대학생들과 애국지사 후손들과 심도 깊은 대화도 나누며 선열들의 발자취를 몸소 체험하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 391-9100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재정 자립화·내실화로 경쟁력 강화”

interview

성낙승 금강대 총장



“학교 자립 기반 모색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2월 8일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총장에 선임된 성낙승씨(前 불교방송 사장, 성총장은 “취임한지 100여일을 넘기게 보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눈에 들어온다”며 “학교의 특색인 ‘장학금 100% 지급, 기숙사 전액 무료’라는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이를 위해 △대학원 설립 △학과과정 △장학금 제도 개선 △

재정후원회 구축 △학교의 수익창출방안 마련 등을 구상중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소감은?

금강대학교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의 도약 위해 정직한 ‘심부름꾼’으로 봉사 임기 중 특수대학원 설립...종단의 협조있길

각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가슴에 엄습해 옴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4년간 금강대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노출되고 생성된 장단점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개선 보완하여 신뢰와 협력과 화합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애교심이 더욱 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중 본격적으로 금강대학교의 제2의 도

약을 위한 화합과 전진이 가능하도록 성실하고 정직한 ‘심부름꾼’으로 봉사하겠다.

△한동안 외부와 단절된 활동을 하셨는데...

취임 후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하다보니 외부에 나오는 것을 꺼리게 됐다. 이

제2의 도약 위해 정직한 ‘심부름꾼’으로 봉사 임기 중 특수대학원 설립...종단의 협조있길

약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 △금강대 운영기조는?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 양성’하고, 국제교류교육을 강화하여 ‘국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공동체봉사교육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필요한 리더를 양성’하는 등으로 생존 전략적 차원의 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특

히 행정실습 특강을 마련해 예절부터 각 분야 실무에 습득토록 교육할 방침이다.

△가장 큰 현안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 중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금강대학교가 예산의 100%를 종단에 의존한다는 점은 큰 단점이다. 이를 위해 근검절약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알찬 내실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며 학교 재정적 안전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재정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수대학원을 임기 중에 설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교계와 종단에 바람이 있다면? 교계와 종단, 재단, 교수 교직원 학생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이 전제되었을 때 금강대학교는 제2의 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받들어 사심 없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6·15 남북 합동범회 평양 광범사서 봉행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6.15 남북위원회 명예대표인 지관 스님과 광범사 주지 범봉 심상진 스님 등 남북 불교계 인사 40여 명은 6월 16일 평양 광범사서에서 합동 범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불과 기쁨은 겹칠지만 남북은 물과 우유가 합하듯 하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범봉 스님도 “광범사는 고려의 기상이 어려 있는 사찰”이라며 “이번 범회를 계기로 남북의 불심을 합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회답했다. 광범사는 고려시대 사찰로 터남은 것을 북한이 1980년대 복원했으며, 최근에는 조계종이 안료 등을 지원해 단청을 새로 입혔다. 한편 남한 불교계 인사들은 광범사 범회에 앞서 조선불교도연맹을 방문해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유태근·김동훈씨 선정 제6회 불교활동가 지원대상



불교활동가지원기금(운영자 동출 설립연구원 원장)은 6월 20일 제 6회 불교활동가지원대상 수상자로 선제 학교 유태근 교장(사진 왼쪽)과 지구촌총생회 김동훈 기획과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범명인 유태근 법사로 더 잘 알려진 유태근 교장은 현재 선제학교 교장, 선재마을 지도법사, 청소년 지도사로 활동하며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뽑혔다.

김동훈 과장은 불교시민운동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제구호사업의 새 영역을 개척하는데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일 기자

우리 기술에 감탄한 홍콩불교 성증사, 홍콩반환 10주년 기념종 제작



홍콩 반환 1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기념종(사진)이 우리의 기술로 제작됐다.

이 범종은 오는 7월 1일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홍콩 반환 기념식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중국 원자 바오 총리를 비롯해 홍콩 주요 인사들이 타종할 예정이다.

지난 1월 홍콩불교연합회 임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발주한 이 범종은 성증사에서 5개월간의 작업 기간을 거쳐 완성됐으며, 그 중심에는 인간문화재 제112호 원광식 종장(성증사 대표)이 있었다. 원 종장은 “특별한 의미로 사용될 이 범종은 지난해 특허를 획득한 정밀주조공법을 사용해 제작됐다”며 “한국법종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정우 스님, 원승 정사, 김규철씨 선출

불교방송 신임 이사 선출

불교방송(사장 홍승기)은 6월 19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6차 재단이사회를 열어 불도사 주지 정우 스님, 총지종 총리원장 원승 정사, 김규철 前 불교방송 사장을 신임 이사로 각각 선출했다.

재단이사회는 또 이달말 임기가 만료되는 배홍규 감사의 임기를 2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사장 선임 문제는 7월에 열리는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불교방송은 올해 3월 이사 임기가 만료된 종하 스님의 이사장 연임 건을 결의하지 못해 상임이사인

영담 스님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교방송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불교종교문화미디어센터에 대한 진행 과정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 영담 스님을 비롯해 종범 스님, 도후 스님, 범조 스님, 회정 정사, 무의 정사, 우승 정사, 홍승희 이사, 민병헌 이사, 명호근 이사, 손현수 이사, 구형선 이사, 홍승기 이사 등 총 18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문화재수리기술’ 특강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자월)이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대비해 7월 2~31일(5주) 매주 월·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문화재수리기술’ 특강을 개설한다.

재학생 및 동문,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대비 특강은 △건축사(심대섭, 대원고건축연구소장) △문양사업영주, 문화재전문위원) △색채학 및 도화(김희정, 문화재단청기기술자) 등의 전반에 대한 집중강의를

통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예상되는 시험내용을 집중 점검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높은 합격률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모집기간은 6월 29일까지이다. (02)745-2030 김원우 기자



서산 가야산 “보존 가치높다” 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보고서 발표

“서산 가야산 일대 지역의 생태환경보존 가치가 높다”

송전탑과 순환도로 건설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서산 가야산 일대 지역 생태 조사 결과 보존 가

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가야산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사찰생태연구소(소장 김재일)와 공동으로 환경전문가 10여

명으로 생태조사팀을 구성, 지난 5월 19·20일 양일간 가야산 개발지역 일대를 생태조사한 후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야산 일대에는 소나무, 활미밀망, 버들화나무 등 생물종 유전자원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한국 특산종’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일 기자

친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 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마미로봇

1588-7402 인터넷 검색엔진에 마미로봇

www.mamirobot.co.kr

불광사 신축건물 디자인 공모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에서 현대건축과 고건축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도심포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종교건축물로서 이 시대를 대표 할 수 있는 신축건물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 공모명** 불광사 신축 건물 디자인 공모
- 위치**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번지, 160-8번지
- 부지면적** 2112㎡ (639평)
- 용적율** 250%
- 건폐율** 50%
 - 건축규모
 - 연면적: 지하4층 지상 5층
 - 건물디자인 대상: 지상 5층 - 연면적 5,279㎡ (1,597평)
 - 주요시설: 법회사실, 교육시설, 문화시설, 사무실등
- 응모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자
 - 현대건축과 고건축(문화재)을 병행하는 건축사 사무소
 - 최근 10년 이내 도심 종교건축 또는 문화시설건축 설계실적이 있는업체 우대
- 공모신청 서류및 신청기간**
 - 건물디자인 응모 신청서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 종교건축 또는 문화시설건축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제출
 - 건물디자인 응모 신청 기간: 07. 6. 25. ~ 07. 7. 6. 17시까지
 - 접수방법: 우편, 팩스, 직접제출
- 건물디자인 작품 제출**
 - 2007년 7월 1일 ~ 2007년 8월 31일 17시까지
 - 접수처: 불광사 불사추진위원회 사무국
- 건물디자인 제출물**
 - 컬러투시도 A1 규격 패넬 부착 1부
 - 컬러투시도 A3 2부
 - 건물디자인 설명서 1부(A4)
- 당선작 발표** 2007년 9월 중(당선작만 개별 통보 함)
 - 당선작 1점: 1000만원 또는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 1점: 500만원
 - 가작 3점: 200만원
 - 특선 및 입선(다수): 100만원
- 심사방법** 내부 심사위원 평가 또는 불사추진위원회 평가
-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에 따른 별도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본 건물디자인 공모에 대한 문의사항은 불사추진위원회 사무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413-6060, 420-7351 / 팩스 02)417-2552
 - 홈페이지 http://www.bulkwangsa.org
 - 공모된 건물디자인 안의 결정은 본 사찰의 불사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단 당선작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내,외 기 발표된 작품 또는 다른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응모작은 수상이후에도 무효처리 됩니다. (상기 공모요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